

연예인도 원정 방문...광주 클럽 “핫하네”

직장인들 회식자리 각광 속
상무지구 클럽 전성시대
한 테이블 1000만원 쓰기도
수영장·카지노 갖춘 바 등장
과도한 향락문화 우려

■1. 지난 29일 밤 10시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L클럽 앞. 폭폭 찌는 폭염에도 한껏 맛을 낸 젊은 남녀들이 클럽 앞에 길게 늘어선 채 있었다. 이들은 클럽문이 열리자, 입장료(남성 2만원, 여성 1만원)를 내고 팔에 야광 도장을 받은 뒤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 입장자에게는 맥주나 주스, 커피 중 1종류의 음료가 제공된다. 클럽안은 클럽(클럽을 사랑하는 마니아)가 워낙 많은 탓에 사실상 열 사람과 몸을 밀착하고 춤을 춰야 할 정도였다.

이 클럽은 최근 50대 ‘클러버’로 떠오른 연예인 박모씨와 가수 김모씨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원정 방문을 오면서 ‘클럽 성지’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클럽은 매주 금·토요일 밤 10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운영하는데, 피크타임인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700~800명이 같은 공간에서 춤을 즐기는 대장관이 연출된다. 400㎡(120평) 크기의 클럽 안에는 양 사이드에 25개의 테이블석이 있는데, 테이블을 예약하려면 평균 2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클럽 관계자의 귀띔이다. 보통 한 테이블당 삼패인이나 보드카 등 2병을 시키면 예약할 수 있는데, 술값 포함 25만원 내외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40~50대 등 중장년층도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로 각광을 받으면서 광개는 테이블당 500만~1000만원을 넘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테이블에 앉으면 모에상동(20만원), 폰페리닝(40만원), 아르망디(70만원) 등 고가의 삼패인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다.



주말인 지난 29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L클럽을 찾은 클러버들이 한데 어울려 클럽댄스를 즐기고 있다.

최근 이 클럽에서 5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는 한 클러버는 “고가의 삼패인을 마시고, 많은 매상을 올려주면 부킹을 받을 때가 많고, 일부 여성 클러버들은 이른바 ‘능력있는 테이블’로 인정해 호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2. 최근 상무지구의 또 다른 건물에 문을 연 K바(BAR)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수영장을 중심으로 텐트 형식의 루프탑이 배치돼 있는데, 술과 함께 수영 등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중이다. 이 업소의 술값은 한병당 1만원대 맥주부터 65만원 짜리 양주까지 다양하다.

인근의 또 다른 바는 이른바 카지노 시설을 갖춘 채 손님을 유혹하고 있다. 이 업소에서는 손님에 현금 등으로 카지노 칩을 구입한 뒤 다양한 카드게임을 통해 일정 금액을 따면, 이를 술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 업소들이 호화적

서리 시설과 이색적인 시설을 갖추고 치열한 손님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들은 고급 시설을 즐기면서도 손님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1만원에서 100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계층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유흥비 지출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은 물론 신용불량자 전락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에는 12곳의 디스코·나이트 클럽이 등록돼 있으며, 톱살롱은 640개가 운영중이다. 최근 문을 연 대부분의 클럽은 영업규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톱살롱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클럽이 인기를 끌면서 한때 ‘회식 2차의 대명사’였던 나이트 클럽은 맥을 못 쓰고 있다. 겨우 상무지구에 있는 S나이트만 밤 12시 이전은 중장년층, 새벽시 간대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

하고 있다. 광주의 나이트·클럽 문화는 지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초반 구 대성학원 뒷골목에 있는 소규모 록카페 형식의 ‘게스’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는 중형급인 동구 수기동 소재 ‘7078 나이트클럽’과 현 금남로 2가 ACC호텔 인근 ‘출리아나 나이트’ 등이 20대 젊은층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관천동 버스터미널 뒤편에 이른바 천장이 열리는 ‘초대형 나이트 전성시대’가 열렸으며, 20대부터 중·장년층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는 문화를 조성하기도 했다. 2010년은 입장료만 내면 춤을 즐길 수 있는 클럽 전성시대다. 구 시청 사거리 일대 소규모 클럽 문화가 형성된데 이어 요즘에는 상무지구 중심으로 호화 클럽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게 유흥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글·사진=김한영기자 young@

앗! 아버지의 실수...차에 열쇠 든 채 문 잠궈 폭염 차량에 갇힌 4살 여아 20분만에 구조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치솟는 폭염 속에서 4살 여아가 차 안에 갇혔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2일 낮 12시 40분께 ‘차 안에 열쇠가 든 채 있다’는 남자의 다급한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다. 119구조대원들은 긴급 출동해 차량 유리창을 깨고 20여분 만에 A(4)양을 구조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차 안에서 울고 있던 A양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이상증세를 보이지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구조했다. A양은 현재 별다른 부상 없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어름철 폭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없는 어린이의 경우는 차 안에 장시간 방치되면 탈진할 수 있다”며 주의의를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투표용지 촬영 단속방 공유 체육회 직원 7명 벌금형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후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린 지방체육회 관계자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군 단위 체육회 간부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7명이 가입한 단체 카톡방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의 비밀 유지 및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특히 A씨는 B씨 등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영광 70대 농부 멧돼지 퇴치용 전깃줄에 감전사

멧돼지 등 해로운 짐승을 쫓으려고 농경지에 설치한 전깃줄에 70대 농부가 걸려 감전사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영광군 묘량면 한 농경지 수로에서 A(7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 상황실 등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 얼굴에는 전류가 흐른 부위에 생기는 조직손상 흔적인 전류흔

이 남아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50cm~1m 떨어진 곳에 옥수수 등이 심어진 A씨의 밭이 있었으며 이 밭에는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220v)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목숨에 밭을 담근 채 전기 울타리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영광=이종훈기자 jylee@

질투의 말로...지인 명품가방·보석 망가뜨린 20대女 벌금형

○...지인이 갖고 있던 1억10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보석, 옷 등을 보고 질투해 망가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2일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35)씨 등 3명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집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의 팔찌를 손으로 구부러 망가뜨리고, 같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한 데 이어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 판매가가 1000만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옷 등을 보고 질투해 망가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

○...A씨는 며칠 뒤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다 봐’라는 글을 남겼다가 범행을 다시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문자는 경협적상 범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일축. /연합뉴스

동창생 집단 괴롭힘 주동자 2명 영장

광산경찰, 4명은 불구속 입건

광주광산경찰청은 2일 중학교 동창을 집단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강제추행·감금 등)로 전남 모 고교 1년 A(16)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6월부

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광주시 광산구 일대 모텔·놀이터·극장 골목 등에서 중학교 동창인 B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6월 24일 광주시 광산구 한 모텔에 “생일빵을 해주겠다”며 B군을 불러내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 15명이 활동하는 SNS에 공유했고 욕설에 가두고 찬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주택 화재로 40대女 질식사

2일 오후 1시40분께 나주시 금천면 조모(87)씨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방안에 있던 며느리 배모(여·43)씨가 연기에 질식사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씨는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던 중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4분 만에 진화됐으며 주택 36.4㎡가 전소됐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법원 경매/공매】	
조정가	경매물건	토 지	일 반 물 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월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근 린 시 설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공 장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 781평 건물 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42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나주 왕곡면 송죽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서구 마북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동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천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월350백 시설비 9천 조정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내주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